

전남도 귀농 보조금 관리 허술 혈세 줄줄 샌다

정착자금 받고 전출·결격 귀농인 지원 등 56건 적발

15개 시군 귀농지원 보조금실태 감사... 42억 재정상 조치

농촌 활성화와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귀농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이른바 '떡튀'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15개 시·군의 2009년 이후 귀농지원 보조금 집행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모두 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시정 38건 중의 18건 조치와 함께 회수 등 37건, 42억38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 관련자 23명은 훈계하도록 했다.

정착자금을 지원받고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이른바 '떡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 많이 적발됐다.

A군은 귀농 정착금을 지원 받은 14명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전출했는데도 보조금 1억63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B군은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은 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20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가 12개 시·군에서 95명, 정착금만 15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이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군은 실제 영농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만 제출했는데도 교육이수로 인정, 총 56명에게 22억5400만원의 용자금 지원받게 하는 등 8개 시·군에서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 119명에 대해 54억1200

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 자금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 관리대상과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개 군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또 농어촌 체험시설인 한옥체험관은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D군은 귀농과는 관련 없는 관광객·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형태로 체험관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2013~2016년 전남은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8381가구의 귀농·귀어를 유치했지만,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며 "무분별한 귀농 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가려서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보조금 관리 실태도 감사해 31건(시정 10건·주의 21건)을 지적했다. 도는 32명(징계 2명·훈계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6200만원(회수 5000만원·반납 1200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사업비를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는 등 위반사항도 지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1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 마련된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 부스에서 문금주 기획조정실장, 고재영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대변인 등과 서명

도민 1만6000명 뜻 모으면 조례 만든다

전남도 조례 제정 주민 수 확정... 19세 이상 1%인 1만5765명

전남도는 11일 올해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를 위한 전남도 주민 총수와 서명 주민 수를 1만5765명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19세 이상 주민 총수 157만6477명의 1%에 해당하는 수치

다. 주민 조례 제·개정 청구 제도는 도민들이 직접 입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사용료·부담금 부과,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은 주민조례 청구가 제한된다. 그동안 이 제도를 활용해 제정된 조례는 총 3건이다.

지난 2003년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

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 2012년 전남도 버찌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2017년 전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최병만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은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인 지방 분권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 조례청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만기자 cki@kwangju.co.kr

민주 일부 당원, 당원명부 유출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6·4지방선거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법무법인 '민주로'에 따르면 장모(44·이모(57)·서모(44) 등 3명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A씨를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당원인 이들은 A4용지 5장 분량의 고발장을 통해 "A씨에게 휴대전화 번

호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A씨의 개인정보 취득 및 사용에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지난 2일 A씨 측으로부터 (3명 개개인)의 실명으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씨측은 "(A씨) 그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확보한 전화번호로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와 관련한 안부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中 장시성 전세기 운항 재개

국제수목비엔날레 예술인 참가

무안국제공항과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공항 간 전세기 운항이 재개된다. 추후 정기 직항로 개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영규 의장 등 도의회 대표단은 전날 중국 장시(江西)성 인민대표회를 방문해 루신서(鹿心社) 당서기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와 장시성은 지난해 4월 교류협력 확대에 합의했지만, 사드 갈등으로 진

전이 없다가 최근 화해 분위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 협약이 이뤄졌다. 특히 무안공항과 난창공항의 전세기 운항을 재개 하자는 임 의장의 제안을 장시성 측이 수용했다. 또 정기 직항로 개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전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2개월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에 장시성 예술인이 참가하고, 강진 청자축제·장시성 국제도자기박람회와 교차 참여 방안도 협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시 4급 이상 71명 전보 인사 단행

광주시가 11일 광주시의회 사무처장에 정민곤(2급), 시민안전실장에 이연(2급), 대변인에 송상진 전 대중교통과장을 임명하는 등 4급 이상 7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22면>

2급 지방이사관의 경우 정민곤 전 문화관광체육실장과 이연 전 교통건설국장이 각각 의회 사무처장과 본청 시민안전실장으로 승진·이동했다.

또 3급 부이사관은 정책기획관에 오재중, 문화관광체육실장에 박항, 복지건강국장에 황인숙, 교통건설국장에 김준영, 수영대회지원본부장에 염방열, 일자리경제국장에 박정환 지정대리, 공무원교육원장에 임형택,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영관, 종합건설본부장에 문정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에 박남주 국장이 임명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신임 실·국장 프로필



정민곤 의회 사무처장

지방고시 출신으로 온화하고 추진력이 있다. 자치행정국장과 교통건설국장 등 시의 요직을 두루 맡아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며 친화력이 있어 시청 내외의 인맥도 넓다. ▲광주인성과 ▲전남대 행정학과(석사) ▲자치행정국장 ▲교통건설국장



이연 시민안전실장

광주의 골치거리였던 화장장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등 추진력이 뛰어나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일처리에 있어서는 공과 사가 명확하다. ▲살레시오고 ▲조선대 법학과(학사)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정책실장



오재중 정책기획관

일처리가 꼼꼼하고, 실수가 없는 편이다. 소탈해 후배 직원과도 격이 없이 소통하고 사회복지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풍부하다. ▲전남고 ▲전남대 행정관리과(석사) ▲사회복지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항 문화관광체육실장

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한전에 파견되는 등 외부기관 경험도 쌓았다. 어드민관공단지 조성 등 특급호텔 건설 등 현안사업을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대이고 ▲조선대 의학과(박사) ▲복지건강국장 ▲서구 부구청장



황인숙 복지건강국장

복지 업무에서 오래 근무한 '사회 복지통'이며 부드러운 성품이지만 일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다. 대인 관계도 원만하고 민원 처리도 깔끔하다. ▲성요셉여고 ▲호남대 상담심리학과(석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김준영 교통건설국장

지방고시 출신이며, 시내버스 노선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언론과 대외 인맥도 풍부하다. ▲광주대동고 ▲전남대 무역학과 ▲대변인 ▲교통정책과장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용자지원사업 / 선택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73-증-83333호

바를르프 다카씨는 **첨단우리병원**

100세 시대 무릎 건강!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무릎의 통증의 시작은 무릎 내측의 관절 연골판 손상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안쪽이 닳아지면 간격이 줄어들면서 오다리 변형이 됩니다. 결국, 오다리 변형을 일차적으로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한 검사! 정밀한 진단! 가족같은 곳!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공원앞위치!